정부, 미국산 쇠고기 문제 봐주기?

〈광우병 위험물질 척추 뼈 발견〉

법적 근거없는 검역중단에 앞장서 안전 장담

국민 건강 위협… 원할한 통상에도 도움 안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원칙없는 봐주기'식 대응이 도를 넘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입중단 사유인 광우병위험물질(SRM)을 확인하고 정부가 내린 '검역중단' 조치나 미국에 준 해명기회 등은 모두 국내외 법률상 근거가 명확치않고, 검역과 유통에 각각 다른 안전성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역중단'은 수입조건에 없는 조치=6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에 따르면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검역당국이 SRM인 척추뼈 발견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취한 '검역중단' 조치는 현행 수입 위생조건에 없는 제재단계다.

실제 수입위생조건 20~21조에는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당해 수출쇠고기 반송 또는 폐기처분 ▲당해 수출쇠고기 생산 작업장 수출선적 중단 ▲수출쇠고기 수입중단 등 세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되 검역만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 법의 취지를 검역 당국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WTO도 보장안하는 '사전해명' 기회까지=지난주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검역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원인해명과 조치 등이 미흡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며 "수입위생조건에도 사전에 미국측에 통보해서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수입 중단 조치에 앞서 미국측에 먼저 해명기회를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결국 이번에 우리 정부가 미국측에 준 협의 기회는 사안의 성격, 사전·사후시점, 해명주체 등의 측면에서 전혀 국제 통상법과 무관한 '특별대우'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美쇠고기 안전 장담=또 김 과장은 시중에 이미 유통된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며 판매중지, 회수 등의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모호한 태도는 국내 안전성 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향후 한미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현재 연령·부위 제한없이 모든 자국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라고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이같은 요구를 방어해야할 정부는 협상도 시작하기에 앞서 스스로 현행 OIE 규정을 인용하며 일부 SRM의 안전성까지 인정하는 등 제무덤 파기에 한창이다.

◇'無원칙 눈치보기' 통상·위생에 모두 도움 안돼=정부의 검역과 관련된 자의적 규정해석과 원칙없는 판단은 국민보건과 위생을 위협할 뿐 아니라 원활한 통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한 변호사는 "정부가 한미FTA 비준과 쇠고기 검역을 지나치게 연계하는데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국제 통상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역을 왜곡하는 '자의적 조치'인만큼 오히려 이같은 원칙없는 대응은 실질적 한미FTA 효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3M, 어린이 과학 캠프 전남지역 초등학생들이 '과학마법사(Visiting Wizard)'와 함께 비누방울을 이용한 과학실험을 하고 있다. 한국쓰리엠은 지난 4~6일 80명의 초등학생들을 초청, KT 나주수련원에서 '어린이 사이언스 캠프'를 개최했다. 〈한국쓰리엠제공〉

2009년 금융빅뱅 대비 M&A로 대형화 유도

김용덕 금감위장 밝혀

김용덕 신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6일 "2009년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 빅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회사의 진입·퇴출이 좀 더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자본확충과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고 정권 말기 금융시장의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책비전으로 '금융감독 선진화를 통한 금융강국 건설'을 설정하고 그 목표로 ▲금융감독 시스템의 혁신 ▲금융감독 역량의 제고와 금융 전문인력의 양성 ▲금융 국제화의 지원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공정경쟁 체제의 확립을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발전 없이는 우리 경제가 향후 국민소득 3만~4만달러 시대를 열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한국 수출 신기록 행진

환율·고유가 극복 … 상반기에만 2,088억달러 기록

사상 처음으로 수출 3천억달러를 돌파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이 환율·고유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기록들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산업자원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의 수출 잠정치는 2천88억4천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3%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수출을 기록했던 지난해의 3천254억6천500만달러를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제품도 지난해에 첫 200억달러 돌파에 이어 올해도 새로운 기록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석유제품 수출액은 113억1천9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2.2% 늘었다.

산자부는 원료인 나프타 가격인상으로 수출단가가 올라가고 있고 아세안 등 개발도상국들의 경기호조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연간 전체로는 지난해의 204억400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선도 수출 신기록을 향해 쾌속항진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선박 수출은 165억3천1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33.4% 증가했다.

조선공업협회는 올해 전체 선박 수출이 사상 최고였던 지난해의 221억2천300만달러보다 많은 28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도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라인의 가동중단에도 불구하고 신기록 달성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반도체 수출은 올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209억2천2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13.2% 늘어난데 이어 연말까지 지난해 수출실적 373억6천만달러를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증여성 해외 송금액 상반기 40억弗 달해

올해 상반기에 증여성 해외송금액이 40억달러에 달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6월 증여성 해외송금액은 39억9천6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2% 증가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3조7천억원에 이른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 19억7천110만달러, 2분기에 20억2천490만달러를 나타내 분기기준으로 해외송금액이 처음으로 20억달러를 넘었다.

증여성 해외송금은 경상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대가없이 외화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주로 해외거주 친지의 생활비나 기부금 등으로 구성된다. /연합뉴스

작년 서비스수지 적자 187억달러

獨·日이어 세계 3위

세계 주요국들의 서비스수지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적자규모가 독일·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2005년 136억6천만달러에서 지난해는 187억6천300만달러로 확대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적자규모는 세계 주요국 중 독일·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큰 것으로 지난해 독일의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487억5천800만달러, 일본은 201억2천900만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우리나라에 이어 러시아(-149억2천800만달러), 캐나다(-133억7천700만달러), 아일랜드(-103억9천만달러) 등의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도 연간 10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무려 797억4천만달러의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해 전 세계에서 흑자규모가 가장 컸고, 영국(537억5천700만달러), 스페인(277억8천300만달러) 등은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은 사업서비스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다는 점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금융서비스와 관광산업 등에서 강점을 보여 서비스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한 반면, 독일·일본·우리나라 등은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 서비스수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